

4상방제의 조성특점 및 4상약물의 분류원칙에 관한 초보적견해

김응섭*

조의학에서는 4상인의 선천적장기의 대소가 부동하고 음양분포와 체질의 특점이 부동함에 근거하여 «약은 사람에 국한한다.»라는 관점을 제기하므로서 «약물의 귀상, 상에 따라 약을 쓰며 변상치료하고 서로 혼합해 쓰지 못하며 약물의 이상반응을 방지해야 한다.»는 독특한 약물사용규률을 창립하였다. 필자는 「동의수세보원」과 「조의학」을 학습하고 연구하는 가운데서 4상방제의 조성특점 및 4상약물의 분류원칙 또는 어떻게 4상약물을 늘이고 보충하겠는가에 대하여 탐구하게 되었다.

조의4상체질학설에서 4상인의 체질특점을 서술하였는데 즉 태양인은 폐대간소, 태음인은 폐소간대, 소양인은 비대신소, 소음인은 비소신대이다. 조의4상방제는 큰 장기는 사하고 작은 장기는 보한다는 약물사용원칙에 따라 음양평형론에 의거하여 임상응용 가운데 옛방제에서 상에 부합되지 않는 약물을 삭제하고 상에 부합되는 약물을 보충하므로써 자기의 독특한 사상방제를 조성하였다. 레하면 소양인의 체질과 음양을 보면 신기능장애, 건망증, 망음(亡陰)등 병에 쉽게 걸리며 체열이 상화(上火)하여 찬

음식을 좋아하는 특점이 있기때문에 늘 청열사화(淸熱瀉火), 신량해표(辛涼解表), 보신보음(補腎補陰)등 냉성약(음성약을 위주로 하는 방제를 사용한다. 레하면 형방패독산, 활석고삼탕, 12미지황탕 등이다. 옛방 상한론에서는 형방패독산은 강활, 독활, 시호, 천호, 적복형, 형개술, 방풍, 지각, 길경, 천궁, 인삼, 감초, 박하로 조성되었는데 이제마선생의 사상방제에서는 이 가운데 원기를 크게 돕고 비장을 보하고 폐에 유익한 인삼, 비장을 보하고 기에 유익한 감초와 활혈행기(活血行氣)하는 온성약을 삭제하고 양혈자음(養血滋陰) 보정익수(補精益髓)하는 신음부족에 쓰이는 생지황과 냉혈퇴황(涼血退黃), 폐열청사하는 지골피와 리수통림(利水通淋)하는 차전자를 증가하였다. 소양인은 양에 약간 기울어졌으며 양이 성하고 음이 쇠하기 때문에 인삼과 같은 온성약, 즉 양성약을 사용하면 발열승독(發熱升毒)등 부작용이 나타나기에 음양평형론에 따라 양성약인 인삼, 천궁 등을 삭제하고 음성약인 생지황등 냉한약을 보충하는 것이 일정한 도리가 있다. 때문에 이제마선생의 형방패독산은 소양인의 두통, 한열이 래왕

* 延邊朝鮮醫藥研究所

하는 환자에게 더욱 적합하며 기타의 소양인방제는 역시 이와같은 원리에 따라 조성되었다. 또 레하면 소음인이비소신대, 음에 기울어졌기에 비위가 허약하여 설사에 쉽게 걸리며 망양 등 증상이 생긴다. 신체가 한하여 더운 음식을 즐기는 것은 소음인의 특징이다. 때문에 온보비위(溫補脾胃), 온성약물을 위주로 하는 방제인, 보중익기탕, 황계제지탕, 8물군자탕 등을 사용한다. 상한론에서 보중익기탕은 인삼, 황계, 백출, 감초, 당귀, 진피, 생강, 대추, 승마, 시호로 조성되었는데 이씨방에서는 인삼, 황계를 배합하고 소양증의 랭성약 즉 음성약인 시호, 승마를 삭제하고 화중지토하는 온성약 즉 양성약 곽향과 소엽을 보충하였다. 임상에서의 응용으로부터 보면 이렇게 조성된 이씨 보중익기탕은 소음인의 비위 허약으로 인한 무력, 설사, 식욕부진 등 증상에 더욱 적합하다. 마찬가지로 기타 소음인 방제와 태음인, 태양인 방제 역시 이러한 원칙에 따라 조성되었으므로 일일이 레를 들지 않겠다.

4상방제는 4상약물로 조성되었다. 이것은 필자가 4상의학을 학습하고 연구하는 가운데서 목전에 귀속한 4상약물은 4상방제로부터 통계하여 나온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므로 조성된 4상방제의 약물약성을 보면 소음인약 다수는 온보비위의 온성약 즉 양성약이 위주이고 태음인 다수는 보폐고폐, 지해화담, 온성통리약 즉 양성약이 위주이다. 소양인 다수는 청열(淸熱), 사화(瀉火), 해독(解毒), 보신보음(補腎

補陰)의 랭성약 즉 음성약이 위주이고 태양인 약물은 아주 적고 랭성 온성약은 거의 절반씩이다. 이로 부터 볼때 4상약물의 분류는 4상인의 체질특점에 근거하여 음양평형론과 약물의 성미, 효과 등 방면의 임상응용 가운데서 만약 상에 부합되면 곧 그 상약물에 귀속할 수 있다. 만약 이렇게 매개 약물을 나눈다면 앞으로 4상약물과 4상방제는 더욱 방대한 수자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밖에 조의학에서 「동상이병동치, 이상동병이치(同象異病同治, 異象同病異治)」의 원칙에 따라 4상방제의 가감을 임상과정에서 응당 같은 상의 약물에서 알맞는 약물을 찾아써야 한다. 레하면 소음인이 신온해표 할때 계지, 생강, 소엽 등을 가감해야지 태음인의 신온해표약 백지, 고본, 마황 등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소양인의 신온해표약 강활, 형개, 방풍 등을 쓰면 안된다.

총적으로 사상방제는 4상인의 장기를 대소에 따라 큰것을 사하고 작은것은 보하는 원칙에 따라 또 음양평형론에 따라 임상실천 가운데서 옛방의 상에 부합되지 않는 약을 삭제하고 상에 부합되는 약물을 보충하여 조성한 독특한 4상방제이다. 4상 약물은 4상방제에서 온 것이기에 4상약물의 분류의거 역시 4상인의 체질, 특점, 음양평형론에 따라 약물의 약성, 호능이 임상응용 가운데서 부합되는가 안되는가에 근거하여 그에 따라 만약 상에 부합되면 곧바로 그 상에 속하는 약물인 것이다.